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7. 11. 27.(월) 10:00

5분 자유발언



논산시의회 의원 민병춘

“논산시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민병춘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2002년도부터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였고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급이상 지방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논산시에도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를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논산시 공무원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논산시 전체 공무원 976명 중 남성은 570명으로 58.40%이고, 여성은 406명으로 41.60%입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중 각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산시 여성공무원(일반직) 직급별 현황

(2017. 10. 26. 현원 기준)

(단위 : 명, %)

직급별	합계	남		여		비고
			비중		비중	
합계	933	543	58.2	390	41.8	
9급	89	50	56.2	39	43.8	
8급	197	99	50.3	98	49.7	
7급	298	158	53.0	140	47.0	
6급	298	194	65.1	104	34.9	
5급	45	36	80.0	9	20.0	
4급	5	5	100.0	0	0.0	
3급	1	1	100.0	0	0.0	

이 숫자를 잘 살펴보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9급부터 시작할 때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특히, 관리자인 5급부터는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위해 앞장 서가는 도시입니다.

공직부문의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각 35개 실·담당관·과·소별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 확대,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여성자치대학을 개설하여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시 총 45명의 5급 관리자 중 여성 5급 공무원은 9명으로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5급 이상 남성공무원이 80%인 것입니다.

물론 충남의 타 시·군을 보면 홍성, 예산은 5급 여성공무원이 1명 즉 2.6%이고 보령, 금산, 서천, 태안은 5급 여성공무원이 2명 즉 5%에 그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곳곳에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여성 관리자의 벽은 높기만 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지난 2009년도 5급 여성공무원이 2명 즉 4.9%인 것에 비하면 황명선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으로 2017년 현재의 20%는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위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무부서에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하도록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공직은 많은 젊은이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직업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직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과 보직의 기준이 남녀가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활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주요 시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중 정부 여성

내각이 30%를 달성해 양성평등의 실천을 선도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논산시 황명선시장님께 우리 논산시 여성
공무원 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 공직사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산시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
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둘째 : 주요정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
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
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 여성공무원들이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
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여성 관리직 육성을 위한 육아 휴직제도, 시간
선택제 근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으며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성평등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논산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발로 뛰며 매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논산시의회 의원 민병춘